

<b>코스피</b> 2536.75 (+27.48)	<b>코스닥</b> 740.32 (+9.34)
<b>금리</b> (미국 9년) 2.582 (+0.004)	<b>환율</b> (원·달러) 1449.45 (+5.15)

업황 악화 이어  
트럼프 리스크까지  
포스코, 위기극복 주목  
02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보카치카 해변에서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의 여섯 번째 시험 비행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스타링크’ 상륙 임박 6G 게임체인저 되나

머스크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과기부, 주파수 이용조건 가닥  
이르면 4월부터 국내 서비스 전망

도입엔 장기적 가입자 급증 예상  
이통사 잇단 협력, 시장변화 촉각  
요금 경쟁 시 판도 변화 가능성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6G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저궤도(LEO: Low-Earth Orbit) 위성산업 경쟁이 국내에서도 가시화되면서 통신 시장의 판도가 바뀔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통신망이 잘 깔려 있는 데다 국내 이통3사도 사업에 협력기로 하면서 통신 시장 판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이용 조건은 스페이스X와 같은 저궤도 통신 위성 사업자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파수 혼신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협정을 맺고 당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승인 절차가 오는 3월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승인 절차가 완료될 경우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또는 올해 2분기안으로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통신은 중장기적인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이 도

달하지 못하는 해상·상공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군(軍) 작전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제 로밍도 필요없게 되는 셈이다.

결국 스타링크의 국내 시장 진입은 6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6G는 초고속과 실시간 정보 전송이 특징으로, 이를 위해선 저궤도 위성통신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UAM은 다양한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하늘, 바다, 해안을 오가며 날아다니게 된다. 다만 지상망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통신 연결이 잠깐 끊어져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유연한 연결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전세계 스타링크 가입자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 100여 개국에서 4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스타링크는 국내 시장에 도입할 경우 누적 가입자가 3년 안에 급증할 것으로 보고있다. 스페이스 X에 따르면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시작할 경우 1년 차에는 누적 가입자가 2130명에 불과하지만 2년 차엔 9580명, 3년 차엔 3만 354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4년 차엔 누적 가입자가 4만명을 웃돌고 5년 차엔 6만 7670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의 판도가 뒤 흔들릴 것인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내 이통3사(SKT·KT·LGU+)는 최근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본업인 6G를 비롯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보다는 인공지능(AI)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개인용 이동 통신망이 촘촘히 깔려 있는 만큼 미국 등 타국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M-커버스토리

## 중소 수출 가시밭길... 정부 정책 발등의 불

### 막오른 美 관세정책

수출 중소기업·액수 늘었지만  
전체 수출 기여도는 지속 하락  
가격경쟁력 기반 시장개척 필요

트럼프가 불지피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희생양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년째 박스권에 갇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이 미국의 관세 도발과 중국의 시장 공략 강화로 인해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2017년 당시 9만 2374개사에서 지난해에는 9만 5905

개사로 3531곳 늘었다. 이 기간 중소기업 수출은 1061억 달러(2017년)에서 1151억 달러(2024년)로 8.5%(90억 달러)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18.5%에서 16.8%로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2020년 당시 19.6%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며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중소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소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2010년 14.7%에서 2022년엔 8.2%까지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내수 판매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갈라파고스화가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기부는 2021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에서 2020년 당시 9만 4900개였던 수출 중소기업 숫자를 올해까지 최대 약 18만 5000개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025년이 됐지만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짙다.

중기부는 또 수출기업에 원·부자재 공급 등을 통해 수출에 기여한 실적, 즉 ‘간접수출’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오리무중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TF’를 꾸린 바 있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 무역전쟁 우려·중동 위기감에 금값 천정부지

금 선물 3일 연속 사상 최고가 경신  
국내 금 시세도 한돈 55.4만원 달해

금 수요가 치솟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에 더해, 트럼프의 강경한 대(對)중동 외교 전략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안전자산 수요를 끌어올렸다. 금 가격은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온스당 3000달러를 목전에 뒀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 금 선물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3일 연속 경신했다. 작년 초 1트로이온스



한국금거래소에 전시된 골드바. /뉴시스

(31.1g, 약 8.1돈)당 2073.4달러(약 3001만원)였던 금 선물은 13개월 만에 2893달러(약 4190만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한 돈(3.75g)에 32만 6000원이었던 국내 금 시세도 55만 4000원까지

치솟았다.

금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갈등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할 때 가격이 상승한다.

트럼프의 강경한 대(對)중동 외교도 금 선호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으로 잦아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힘입어 금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최 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농수산물 할인지원 등 실행

최삼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국무회의에서 밝힌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하겠다고면서,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겠다

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15%, 경유·LPG는 23%다.

또 최 권한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 추가 투입 ▲과일·채소 할인관세 물량 37만톤 신속 도입 ▲배추·무 등 정부 가용물량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 공급 ▲3월 동행축제 계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석유류·김 등 생활 밀접품목에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 실시해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 엄단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 원희룡 “내란죄 뺀 한덕수 ‘영터러 탄핵’ 즉시 기각해야”  
▲ 진성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제외’ 빼고 일단 처리... 파트도 검토” /사진 뉴시스

▲ 김종인 “다음 대선 출마자는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 최 대행 “법원 폭력 엄정 대응 못해 송구... 계엄은 잘못된 결정”

▲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기소 휴직... 육군총장 인사조치 검토”  
▲ 곽종근,尹 면전에서 “윤, 의원들 데리고 나오는 지시”